

도내 폐교 활용, 지역 특성에 맞게

도교육청, 기존 보존·관리형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전환 학생 교육활동 위한 시설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 최우선 지자체서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생태시설 등 활용 협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 정책을 추진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의 폐교 활용은 보존·관리 위주의 소극적 정책이었으나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지역 맞춤형으로 전환했다. 먼저, 폐교 활용 기본 방향으로는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 청소년

자치 예술마당공간,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폐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같은 폐교 활용 기본방향을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에게 안내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TF를 구성·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타 시도 폐교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기본 매뉴얼은 △제2장 폐교재산 정의 △제3장 폐교재산 활용 방향 △제4장 폐교재산 활용 실무 △제5장 폐교재산 관리 일반 △제6장 법령해석 및 질의의심 사례 등 총 5장으로 구성됐

다. 폐교재산 정책에서부터 대부·매각 요령 공부 관리 및 주요 민원 사례까지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서거석 교육감은 “폐교를 보존·관리 위주의 소극적 관점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으로 전환해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폐교가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지역의 폐교는 40곳으로, 자체활용 24·대부 9·섬 지역에 위치한 보존 폐교 7(군산 4, 부안 3) 등이 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총동창회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학우여러분, 따끈한 밥 한끼 드세요”

전북대 총동창회, 아침식사 지원사업 확대 동문 후원 올해까지 총 1만2000여 학생 지원 내년 대학 측에서도 관련 예산 지원 예정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정영택)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총동창회는 그간 동문들의 심시 일반 후원을 통해 올해까지 총 1만2,000여명의 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지원했고, 내년에도 동문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 측에서도 관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동창회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 든든한 아침을 맞는다는 소 모 학생은 “아침을

거르고 책상에 앉으면 배가 고파 집중이 안되는데 이 사업 덕분에 공부에 더욱 열중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이 사업이 확대돼 더 많은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택 총동창회장은 “후배들에게 아침을 먹여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 마음을 가진 선배들의 마음을 모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지능정보기술 언론 보도 수도권-지역 격차 실증 분석

전북대 유경한 교수팀 ICONI 학술대회 수상 영예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경한 교수팀(장지원, 강지안, 최지은 대학원생)이 제4회 ICONI 국제학술대회에서 Outstanding Paper Award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이 학술대회는 전 세계 120편이 넘는 다양한 지능정보기술 관련 최신 연구가 발표돼 성황을 이뤘다.

유 교수팀은 Digital Gap Reflected i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s: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Local Area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지능정보기술 관련 언론보도의 수도권-지역 간의 격차를 실증 분석한 것으로, 지역 내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유경한 교수는 전북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소속 대학원생(강지안, 장지안, 최지은 조맹, 독문기, 왕일범, 까오 티 빅응)들과 이번 학회에서만 모두 다섯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지역 내 지능정보기술 관련 학술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융합기술사업화혁신형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벤처기업협회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인력 양성 ‘한 마음 한 뜻’

전북대 MOT 사업단, 벤처기업협회와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융합기술사업화혁신형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권대규·이하 MOT사업단)이 벤처기업협회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T 사업단은 2019년부터 융합기술 사업화혁신형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융합기술경영학과 석박사 대학원 과

정을 운영 중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목표로 벤처기업 홍보 및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 인적역량강화 교육 우수인력 채용 생생협력 및 인프라 구축, 회원사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과 인·물적 자원의 교류 등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대규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및 인력을 기반으로 융합기술경영학과 과정생들의 기술사업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 생태계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인이 양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호 회장은 “이번 협약이 양 기관 인적 교류의 시점이 될 것”이라며 “인적교류를 통해 협회와 사업단 모두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중학교 기초학력 정책 설명회

어제 전주·군산·익산·정읍지역 105개교 내일 남원 등 10개 시·군 106개교에서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중학교 기초학력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도내 중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갖는다.

지난 20일은 전주·익산·군산·정읍지역 105개교에서, 이어 22일에는 남원 등 10개 시군 106개교에서 참여한다.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의 기초학력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학교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진단 체계화에 나섰다. 특히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검사를 통해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된 학생은 보호자 동의 후,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이후 3차례의 향상도 검사를 진행한다. 1차(5~6월)·2차(9~10월)는 권장이지만 3차(11~12월) 검사는 필수다. 검사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된다.

먼저, 교실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배치한다. 초등학교 60명, 중학교 40명 등 총 100명의 기초학력 협력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수학 수업 및 중학교 전 학년 수

학 수업을 함께 지도해 학습부진을 적기에 해소하고,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학생 맞춤

형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두드림학교, 학습지원 튜터(300명), 교과보충(학습도움단기) 프로그램, 포레학습 나눔활동(중·고)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이끌게 된다.

특히,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학력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기초학력 협력교사(44명)와 현장 교사 중심의 학력지원단을 구성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친다.

한편 학교 밖에서는 난독·경계선지능 대상 학생들의 심층진단 및 전문교육 지원, 학생·학부모 대상의 학습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학교·교원 대상의 연수 및 사업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장은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국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추진하게 된다”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23일 학생회관에서 ‘총장이·취임 봉고식’ 개최

원광대학교는 제13대 학산 박영수 총장 취임 및 제4대 석산 박성태 총장 취임 봉고식이 오는 23일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날 이·취임 봉고식에는 원광학원 성시중 이사장을 비롯한 외부인사와 구성원 등이 참석한다.

제4대 박성태 신임 총장은 지난 11월 공개토론회와 구성원 평가 등을 거쳐 원광학원 이사회를 통해 선임됐다.

박 신임 총장은 1988년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돼 원광고 교수협의회장, 경상대 학장, 경영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뉴시스

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 한국산업경제학회 회장, 대한경영학회 회장, 한국 재무관리학회 회장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해왔다.

박 신임 총장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원광대의 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뉴시스

대학의 원격수업 노하우 공유

전주비전대, 전북권역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

전주비전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센터장 김영민)는 2022년도 전북권역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1~18일까지 권역 내 원격수업 우수사례 발굴과 대학의 원격수업 노



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교직원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은 원격수업과 관련한 자유주제로, 교직원엔 원격교육 교수·학습법, 원격교육 운영 등과 관련한 것이고, 학생은 원격수업 학습 노하우와 관련된 것이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은 전북대학교 이주인 학생의 ‘오늘의 새로운 교육방식, 내일의 성장을 위한 변화였다’ 우수상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유승희 교수의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융복합 교육은 바로 나의 강의실에서부터 시작’ 과, 호원대학교 김은옥 직원의 ‘클라우드 기반 교육 플랫폼 H-FUB를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 이다. 이어